

## 가정배경과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 결정요인 분석\*

황나영\*\* · 이자형\*\*\* · 이기혜\*\*\*\*

### 초 록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으로 가계소득, 부모학력, 가정 내 사회자본, 학교부적응, 교육포부, 학업성취,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등을 설정하고 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의 교육포부, 학업성취, 가구의 소득, 가정 내 사회자본, 학교 부적응 순으로 이들 요인들이 청소년의 노동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학력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정 내 사회자본, 교육포부, 학업성취 등의 다양한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가정배경 그리고 학교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정배경, 학교 적응

\* 이 논문의 초고는 제9회 통계청 대학(원)생 논문공모 부분에서 입상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꼼꼼하고 유익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가 세 분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nayoung725@yahoo.co.kr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seo2jin@hanmail.net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premier110@hanmail.net

## I. 서 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및 취업활동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입시철이 지난 방학은 이러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시기로,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실태와 권익 침해에 대한 보고역시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 청소년인권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1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2011.6.13). 또한 15세~18세 청소년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여성가족부, 2010).

이와 같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장시간 노동활동 참여율은 사실상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학업성취와 입시준비라는 절대적 과업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재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랫동안 확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과될 수 없는 수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인권의 문제와 중첩되어 이로 인한 피해들이 매해 보고되고 있으나(경향신문, 2011.5.19; 오마이뉴스, 2010.11.12; 한국일보, 2009.11.28)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이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처한 가정배경과 학교 환경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업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김기현, 2003; 유성렬, 2005; Marsh & Kleitman, 2005)과 청소년 비행 관련성(김예성·김선숙, 2009; Longest & Shanahan, 2007; Monahan et al., 2011; Staff & Uggen, 2003; Wright et al., 2002)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진로탐색이나 사회 및 직업 활동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구효진·최진선, 2006; Leventhal et al., 2001).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세 높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한창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학업성취도 저하를 넘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포부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열악한 가정배경 출신의 자녀들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아르바이트 참여시간이 더 길다는 선행연구 결과(Bachman et al., 2011; Gouvias & Vitsilakis-Soroniatis, 2005; Lee & Staff, 2007; Staff & Mortimer, 2007; Warren & Cataldi, 2006)를 통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소외계층의 청소년 자녀들

이 강도 높은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점들은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빠른 시기에 상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교육포부와 학교적응을 매개로 가정배경과 사회자본이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것이 남녀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누구에게나 미래의 직업선택과 사회활동을 위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보완과 지원을 논의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과 노동시간

많은 연구는 청소년들의 장시간 노동이 학업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 왔다. 우선 대체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그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yne, 2003; Singh et al., 2007; Weller et al., 2003). 특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고 학업성적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Singh et al., 2007). 또한 일군의 학자들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노동시간 증가는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따라서 학업성취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Carr et al., 1996; Steinberg et al., 1982). 반면, 청소년들의 과도하지 않은 노동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도 있다(Mortimer et al., 1996).

한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장시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뿐 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이 비행

을 유발하거나 비행빈도를 증가시킨다고 제시하였다(김예성 · 김선숙, 2009; Longest & Shanahan, 2007; Monahan et al., 2011; Staff & Uggen, 2003; Wright et al., 2002). 예컨대 Staff 등(2010)은 장시간의 노동이 또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며, 특히 이러한 시간은 대체로 성인의 감독이 부재한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주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Bachman 등(2011)은 노동의 강도가 특히 흡연습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의 장시간 노동이 비행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처한 맥락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노동 시간 증가는 음주 빈도 등의 비행 횟수를 높일 수 있다(Longest & Shanahan, 2007).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지지와 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는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Hansen & Jarvis, 2000). 한편 Staff, Uggen(2003)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노동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비행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보고하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청소년 노동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청소년의 강도 높은 노동이 음주 및 일탈과 같은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지만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일탈행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장시간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과는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르바이트의 강도, 질, 종류와 더불어 각 개인이 처한 환경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청소년의 노동시간 결정요인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들의 노동시간 결정 요인으로 가정배경, 학교환경, 그리고 학생의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과 학교, 개인 특성 변인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정배경 요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노동시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열악한 가정 배경의 청소년일수록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유리한 가정 배경의 청소년들은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비교적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 Staff, 2007; Staff & Mortimer, 2007).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과 청소년의 노동 강도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며(Bachman et al., 2011; Gouvias & Vitsilakis-Soroniatis, 2005; Warren & Cataldi, 2006), 가구소득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유성렬, 2005). 뿐만 아니라 불리한 가정 배경 출신의 청소년들은 더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Staff & Mortimer, 2008).

한편,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정 내 사회자본 역시 청소년의 노동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제시된다. 부모-자녀 간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Roisman, 2002). 아울러 부모의 관심과 관여를 받는 청소년은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그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고 학업과 일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Pickering & Vazsonyi, 2002).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 간의 친밀도가 높고, 부모와 충분히 대화를 하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성, 2004).

## 2) 학교 관련 요인

일군의 학자들은 오랜 시간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대체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어려워하고,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Steinburg 등(1993)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에 흥미가 없는 청소년들인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Entwisle et al., 2000; Warren, 2002). 결국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고 학교에서 낮은 성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일을 함으로써 학업적인 성공 이외의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taff et al., 201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Warren(2002)은 장시간의 노동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성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종성·이병훈(2010)이 입시 위주의 수업이 청소년들의 학교 만족도를 낮게 하고, 낮은 학교만족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청소년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는 청소년이 장시간 노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Bachman & Schulenberg, 1993).

### 3) 개인 특성 요인

개인이 지닌 특성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는 장시간의 노동과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가 낮은 청소년은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개인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aff, Mortimer(2008)는 학업성취가 낮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지적하며 이 청소년들은 특히 노동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획득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기보다는 노동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Warren et al., 2000).

한편, 교육포부도 노동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oenhals et al., 1998; Warren et al., 2000). Staff, Mortimer(2007)는 교육포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며 평균 31개월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학 진학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적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Bachman et al., 2011; Hirshman & Voloshin, 2007). 이는 청소년 스스로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낮다고 여기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arren et al., 2000).

### III. 연구방법

####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남녀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YPS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패널조사로서 2003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약 3,500명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08년 6차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5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2007년에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른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여 4차년도와 5차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sup>1)</sup>.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서는 본 연구가 설정한 변인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2,967명이 선정되었다.<sup>2)</sup>

#### 2. 변인 설정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잠재변수 및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최종 종속변수인 아르바이트 시간은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시간으로, ‘최근 아르바이트 주당 평균 근무 기간’과 ‘최근 아르바이트 일당 평균 근무 시간’으로 조사된 것을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환산하였다.

- 1)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인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나머지의 변수들은 모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 2)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2,967명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한 주요 배경변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일주일 평균, 남학생(1,510명)은 8.9시간, 여학생(1,457명)은 8.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교 학생(2,194명)의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이 6.5시간, 특목고 학생(49명) 0.9시간, 전문계 고교 학생(642명) 15.5시간, 예체능계 고교 학생(29명) 4.9시간으로 나타났다. 학업진행 여부에 따른 일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학업진행 청소년(2,914명)의 경우 8.4시간인데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53명)은 일주일 평균 23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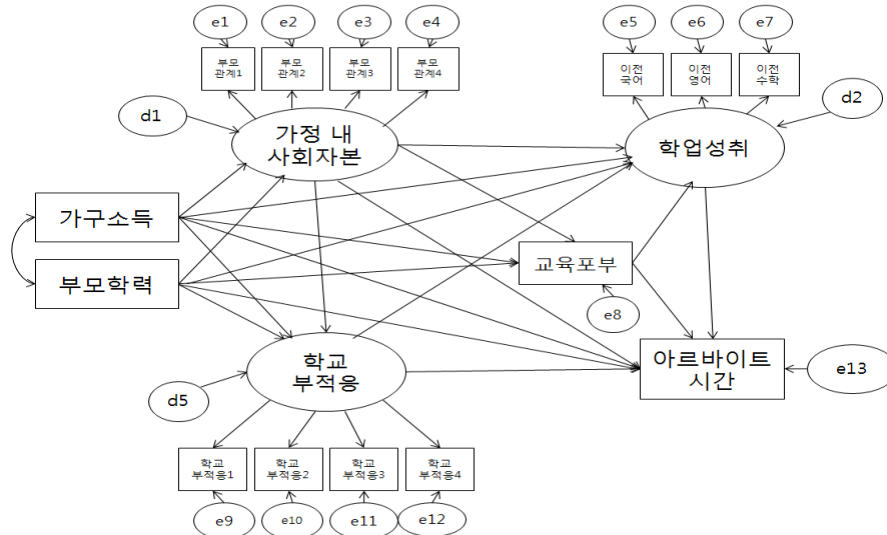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은 본래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석사, 박사로 조사되었던 것을 각 학교 급의 교육 연한에 해당되는 0, 6, 9, 12, 14, 16, 18, 21로 바꾸어 연속변수로 변환한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중 교육연한이 더 높은 경우를 투입하였다. 가계소득은 편포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평균 총 가계소득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 내 사회자본, 학교 부적응, 본인의 교육포부, 학업성취를 선정하였다. 이 중, 가정 내 사회자본 변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4개 문항<sup>3)</sup>에 대한 값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합산하여 하나의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학교 부적응 변인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여 투입하였다.<sup>4)</sup> 한편, 본인의 교육포부수준 변인은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으로 조사된 것을 각 학교 급의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취 변인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지난 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합산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상술한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고, 각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는 <부표 1>에 제시되었다.

3) 가정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된 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의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여 주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4) 학교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은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렵다’,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비행으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에 대해 5점 척도 조사된 4개 문항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가정 내 사회자본과 학교부적응, 교육포부 및 학업성취 변인을 투입하여 이들의 직,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결측 자료는 EM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sup>5)</sup>,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추정 방법과 부트스트랩(bootstrapping)<sup>6)</sup>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본 연구가 설정한 변수들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 다수의 결측치가 발생하여 통계적인 검증력을 약화시키고 모수 추정에서 편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6)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부트스트랩 추정 방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추정된 계수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추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 시,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만 제공된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수가 존재하거나 본 연구에서처럼 매개경로가 3단계 이상의 복잡한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Arbuckle, 2009).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모형의 적합도 및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가지 모형 적합도 지수와 그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947, TLI .924, RMSEA .052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sup>7)</sup>

<표 1>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 자유도 | Chi-square | TLI  | CFI  | RMSEA |
|-----|------------|------|------|-------|
| 73  | 656.302    | .924 | .947 | .052  |

다음 <표 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이다. 분석 결과, 모형에 투입된 모든 측정변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 측정변수     | 가정 내 사회자본      | 학교부적응 | 학업성취 |
|----------|----------------|-------|------|
| 부모와의 관계1 | 1              |       |      |
| 부모와의 관계2 | 1.000(.028)*** |       |      |
| 부모와의 관계3 | 1.223(.031)*** |       |      |
| 부모와의 관계4 | 1.223(.034)*** |       |      |

7) 홍세희(2000)에 따르면  $\chi^2$ 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CFI, TLI, RMSEA 등을 검토하였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기저모형과 연구모형을 비교하는 상대 적합도 지수로, CFI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TLI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는 동시에 간명성도 함께 고려한다. 한편,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역시 표본의 크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이다. 대체로 CFI와 TLI는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판단하며,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 측정변수    | 가정 내 사회자본 | 학교부적응          | 학업성취           |
|---------|-----------|----------------|----------------|
| 학교부적응4  |           | 1              |                |
| 학교부적응3  |           | .746(.035)***  |                |
| 학교부적응2  |           | 1.484(.050)*** |                |
| 학교부적응1  |           | 1.418(.048)*** |                |
| 이전국어성취도 |           |                | 1              |
| 이전영어성취도 |           |                | 1.697(.092)*** |
| 이전수학성취도 |           |                | 1.226(.071)*** |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 1) 전체 연구대상 분석

다음 <표 3>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이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투입한 변수 가운데 교육포부 수준이 청소년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포부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포부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 일찍이 본인의 학업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아르바이트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포부에는 부모의 학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포부 수준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가정배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의 교육포부 수준이 낮고, 낮은 교육포부 수준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Staff, Motimer(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t;표 3&gt;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 경로                   |             | 추정치                                                                              | 표준화<br>추정치 | 표준<br>오차 | 임계치        |
|----------------------|-------------|----------------------------------------------------------------------------------|------------|----------|------------|
| 가구소득                 | → 가정 내 사회자본 | .143                                                                             | .119       | .026     | 5.398**    |
| 가구소득                 | → 학교부적응     | -.073                                                                            | -.072      | .023     | -3.207**   |
| 가구소득                 | → 교육포부      | .385                                                                             | .126       | .059     | 6.492***   |
| 가구소득                 | → 학업성취      | .071                                                                             | .087       | .020     | 3.623***   |
| 가구소득                 | → 아르바이트 시간  | -2.440                                                                           | -.074      | .668     | -3.653***  |
| 부모학력                 | → 가정 내 사회자본 | .016                                                                             | .070       | .005     | 3.195**    |
| 부모학력                 | → 학교부적응     | .000                                                                             | -.001      | .004     | -.042      |
| 부모학력                 | → 교육포부      | .114                                                                             | .202       | .011     | 10.471***  |
| 부모학력                 | → 학업성취      | .016                                                                             | .104       | .004     | 4.264***   |
| 부모학력                 | → 아르바이트 시간  | -.178                                                                            | -.029      | .125     | -1.428     |
| 가정 내 사회자본            | → 학교부적응     | -.206                                                                            | -.309      | .020     | -12.922*** |
| 가정 내 사회자본            | → 교육포부      | .170                                                                             | .067       | .052     | 3.291**    |
| 가정 내 사회자본            | → 학업성취      | .053                                                                             | .079       | .017     | 3.134**    |
| 가정 내 사회자본            | → 아르바이트 시간  | -1.698                                                                           | -.062      | .577     | -2.944**   |
| 학교부적응                | → 교육포부      | -.414                                                                            | -.137      | .064     | -6.456***  |
| 학교부적응                | → 학업성취      | -.253                                                                            | -.315      | .024     | -10.570*** |
| 학교부적응                | → 아르바이트 시간  | 1.806                                                                            | .056       | .782     | 2.311*     |
| 교육포부                 | → 학업성취      | .052                                                                             | .195       | .006     | 8.162***   |
| 교육포부                 | → 아르바이트 시간  | -1.212                                                                           | -.112      | .213     | -5.704***  |
| 학업성취                 | → 아르바이트 시간  | -3.556                                                                           | -.088      | 1.10     | -3.219**   |
| SMC(R <sup>2</sup> ) |             | 가정 내 사회자본: .026    학교부적응: .107    교육포부: .122<br>학업성취: .247    아르바이트 시간(주당): .068 |            |          |            |

\*p&lt;.05    \*\*p&lt;.01    \*\*\*p&lt;.001

교육포부 다음으로 청소년의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취, 가구소득, 가정 내 사회자본, 학교부적응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더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무엇보다 학업성적을 강조하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업경쟁에서

밀리고,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일찍부터 학업과 유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스스로가 학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Entwisle, Alexander, Olson(2000)는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주로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아르바이트 장소에서는 노동에 대해 임금이라는 동일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장시간의 노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뿐 만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 강도를 결정할 만큼 절대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사회자본 역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에서 부모와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을수록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자녀의 애착관계가 강한 가정일수록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세심하게 감독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장시간의 노동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ickering, Vazsonyi(2002)이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는 청소년들은 일을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만을 한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의 적응이 원활하고, 교내에서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학교 내에서 의미 있는 타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학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가정배경 뿐 아니라 학교생활 역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결국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의미 있는 타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에는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각 경로의 효과를 전체효과와 직·간접효

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가정 내 사회자본과 학교부적응, 교육포부, 학업성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미치는 전체효과 및 직·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사회자본이 강하게 형성되고,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와 학업성취가 높으며, 학교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구소득은 자체로서 청소년의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정과 학교 환경, 그리고 개인적 특성 변인을 매개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한 가지 단일한 특정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정 과정에 다양한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부모학력의 전체효과는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는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가정 내 사회자본이 강하고,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와 학업성취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학교부적응에 대한 부모학력의 직접효과가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부모학력이 가정 내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여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한 부모학력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정 내 사회자본과 교육포부, 학업성취를 매개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상당한 간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t;표 4&gt; 효과분해

| 추정<br>변수 | 전체효과     |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효과경로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 가구<br>소득 | .143**   | .119    | .143**   | .119    | -        | -       | →가정내사회자본 |
|          | -.110**  | -.108   | -.073*   | -.072   | -.037**  | -.037   | →부적응     |
|          | .455**   | .149    | .385**   | .126    | .070**   | .023    | →교육포부    |
|          | .130**   | .160    | .071**   | .087    | .059**   | .072    | →학업성취    |
|          | -3.896** | -.118   | -2.440** | -.074   | -1.456** | -.044   | →아르바이트시간 |
| 부모<br>학력 | .016**   | .070    | .016**   | .070    | -        | -       | →가정내사회자본 |
|          | -.004    | -.023   | .000     | -.001   | -.004**  | -.022   | →부적응     |
|          | .119**   | .210    | .114**   | .202    | .004     | .008    | →교육포부    |
|          | .024**   | .157    | .016**   | .104    | .008**   | .053    | →학업성취    |
|          | -.440**  | -.072   | -.178    | -.029   | -.262**  | -.043   | →아르바이트시간 |

| 추정<br>변수            | 전체효과     |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효과경로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 가정<br>내<br>사회<br>자본 | -.260**  | -.309   | -.260**  | -.309   | -        | -       | →부적응      |
|                     | .227**   | .109    | .170**   | .067    | .108**   | .042    | →교육포부     |
|                     | .134**   | .197    | .053**   | .079    | .080**   | .118    | →학업성취     |
|                     | -2.979** | -.109   | -1.698** | -.062   | -1.280** | -.047   | →아르바이트시간  |
| 부<br>적응             | -.414**  | -.137   | -.414**  | -.137   | -        | -       | →교육포부     |
|                     | -.275**  | -.341   | -.253**  | -.315   | -.022**  | -.027   | →학업성취     |
|                     | 3.285**  | .101    | 1.806*   | .056    | 1.479**  | .045    | →아르바이트 시간 |
| 교육<br>포부            | .052**   | .195    | .052**   | .195    | -        | -       | →학업성취     |
|                     | -1.397** | -.130   | -1.212** | -.112   | -.185**  | -.017   | →아르바이트시간  |
| 학업<br>성취            | -3.556** | -.088   | -3.556** | -.088   | -        | -       | →아르바이트시간  |

\*p<.05 \*\*p<.01 \*\*\*p<.001

상술한 결과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포함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의 경우, 가정 내 사회자본이 약할 수 있고, 본인의 교육포부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 수준도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정배경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약하며, 이러한 배경적 환경이 학교생활과 본인의 포부 수준,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을 등한시하거나 일찌감치 포기한 후,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노동 시장 진입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성인 이후 시점에 빈곤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McCoy, Smyth(2007)가 노동자 계층의 청소년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낮은 학업성취 결과로 귀결되며, 이는 결국 이들을 학업 이후의 노동시장에서 열세에 놓이게 함으로써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의 노동시장 참여가 또 다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

록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가정과 학교 내의 의미 있는 타자들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2) 성별 비교 분석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Entwisle et al., 2000; Hirschman & Voloshin, 2007)<sup>8)</sup>.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대상을 남녀로 나누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을 각각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잠재변인 사이의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측정 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s)이 충족되어야 한다(김주환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가 CFI .947, TLI .927, RMSEA .036으로 나타나 동일한 수준에서 남녀 집단 간 회귀계수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측정요인의 부하량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을 설정하고, 남녀 집단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 경로   |             | 남       |         | 여         |         |
|------|-------------|---------|---------|-----------|---------|
|      |             | b       | $\beta$ | b         | $\beta$ |
| 가구소득 | → 가정 내 사회자본 | .139*** | .124    | .148***   | .116    |
| 가구소득 | → 학교부적응     | -.049   | -.047   | -.105***  | -.106   |
| 가구소득 | → 교육포부      | .508*** | .163    | .248**    | .083    |
| 가구소득 | → 학업성취      | .106*** | .123    | .032      | .042    |
| 가구소득 | → 아르바이트 시간  | -1.559  | -.045   | -3.437*** | -.111   |
| 부모학력 | → 가정 내 사회자본 | .005    | .026    | .026***   | .112    |
| 부모학력 | → 학교부적응     | .000    | -.001   | .000      | .000    |

8) Hirschman and Voloshin(2007)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Entwisle, Alexander, and Olson(2000)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일을 더 일찍 시작하고 더 장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분석한 양정호(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시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



| 경로        |            | 남        |         | 여         |         |
|-----------|------------|----------|---------|-----------|---------|
|           |            | b        | $\beta$ | b         | $\beta$ |
| 부모학력      | → 교육포부     | .122***  | .209    | .107***   | .196    |
| 부모학력      | → 학업성취     | .014**   | .085    | .018***   | .133    |
| 부모학력      | → 아르바이트 시간 | -.248    | -.038   | -.100     | -.018   |
| 가정 내 사회자본 | → 학교부적응    | -.251*** | -.270   | -.264***  | -.343   |
| 가정 내 사회자본 | → 교육포부     | .178*    | .064    | .175*     | .075    |
| 가정 내 사회자본 | → 학업성취     | .069**   | .089    | .041      | .070    |
| 가정 내 사회자본 | → 아르바이트 시간 | -1.412   | -.046   | -1.940**  | -.080   |
| 학교부적응     | → 교육포부     | -.445*** | -.149   | -.381***  | -.126   |
| 학교부적응     | → 학업성취     | -.249*** | -.301   | -.260***  | -.340   |
| 학교부적응     | → 아르바이트 시간 | 1.737    | .052    | 1.793     | .057    |
| 교육포부      | → 학업성취     | .053***  | .191    | .049***   | .195    |
| 교육포부      | → 아르바이트 시간 | -.843**  | -.076   | -1.657*** | -.160   |
| 학업성취      | → 아르바이트 시간 | -4.888** | -.122   | -1.923    | -.047   |

적합도:  $\chi^2=774.879(df=154)$ , TLI=.935 CFI=.946 RMSEA=.034

\*p<.05 \*\*p<.01 \*\*\*p<.001

분석 결과, 먼저 각 집단 간 아르바이트 시간 결정 요인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학생 집단에서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가정 내 사회자본과 학교부적응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육포부와 학업성취의 영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포부에 비해 학업성취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가정 내 사회자본과 학교부적응 등의 요인들은 각각 교육포부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이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를 완전히 매개하여 남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이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학교 적응이 어렵다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며, 여기에는 포부수준 및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학생 집단과 달리 여학생 집단에서는 가구소득과 가정 내 사회자본, 교육 포부가 아르바이트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업성취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구소득과 가정 내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정의 경제사정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정배경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불리한 가정배경을 가진 여학생들은 개인의 성취 수준과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이 유해한 것으로 지적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가정배경이 열악한 여학생들의 경우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실제로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모형의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저모형(baseline model)과 비교해야 한다. 여기에서 기저모형은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기저모형의 카이제곱의 차이를 통해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각각의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20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경로별 동일화 제약을 실시한 결과, 전체 경로에 대한 카이제곱 변화량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기저모형에 비해 제약을 가한 모델의 TLI 지수가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렬(2009)은 제약을 가한 모델의 적합도가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델의 적합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면, 각 경로계수는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가구소득이 교육포부에, 부모학력이 가정 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6> 경로별 동일화 제약 결과

| 경로        |             | 자유도<br>변화량 | $\chi^2$<br>변화량 | TLI<br>변화량 |
|-----------|-------------|------------|-----------------|------------|
| 가구소득      | → 가정 내 사회자본 | 1          | .032            | -.001      |
| 가구소득      | → 학교부적응     | 1          | 1.530           | 0          |
| 가구소득      | → 교육포부      | 1          | 4.813*          | 0          |
| 가구소득      | → 학업성취      | 1          | 3.656           | 0          |
| 가구소득      | → 아르바이트 시간  | 1          | 1.983           | 0          |
| 부모학력      | → 가정 내 사회자본 | 1          | 4.646*          | 0          |
| 부모학력      | → 학교부적응     | 1          | .002            | -.001      |
| 부모학력      | → 교육포부      | 1          | .447            | -.001      |
| 부모학력      | → 학업성취      | 1          | .400            | -.001      |
| 부모학력      | → 아르바이트 시간  | 1          | .354            | -.001      |
| 가정 내 사회자본 | → 학교부적응     | 1          | .119            | -.001      |
| 가정 내 사회자본 | → 교육포부      | 1          | .001            | -.001      |
| 가정 내 사회자본 | → 학업성취      | 1          | .660            | -.001      |
| 가정 내 사회자본 | → 아르바이트 시간  | 1          | .204            | -.001      |
| 학교부적응     | → 교육포부      | 1          | .249            | -.001      |
| 학교부적응     | → 학업성취      | 1          | .070            | -.001      |
| 학교부적응     | → 아르바이트 시간  | 1          | .001            | -.001      |
| 교육포부      | → 학업성취      | 1          | .101            | -.001      |
| 교육포부      | → 아르바이트 시간  | 1          | 3.687           | 0          |
| 학업성취      | → 아르바이트 시간  | 1          | 1.755           | 0          |
| 20개 경로 제약 |             | 20         | 28.633          | -.007      |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교육포부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는 남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교육포부는 가계소득으로부터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운 남학생은 스스로 교육포부를 낮추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가정 내 사회자본에 대한 부모학력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의 부모학력은 가정 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의 부모학력은 가정 내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환경의 남학생과 비교하여 저학력 부모를 둔 여학생의 사회자본이 더 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르바이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계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상술한 두 가지 경로를 제외하고 가정배경이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경로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가정배경에 놓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유사하게 높은 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우리사회에서 이미 노동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보호와 지원이 필요로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임에 분명하다. 학업에 모든 시간을 몰입해도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배경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가정배경이 교육포부와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발휘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배경과 학교환경 그리고 학생의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교육포부 수준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업성취, 가구의 소득, 가정 내 사회자본, 학교부적응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가정배경 변인 중 부모학력이 아르바이트시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정배경 변인 중 가구소득은 모든 경로에 있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사회자본이 클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 뿐 만 아니라 학업성취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학교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가정 내 사회자본도 열악하고, 학교적응도 역시 낮으며, 교육포부 수준을 높게 설정하기 어렵고, 학업성취도 또한 낮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둘러싼 열악한 가정배경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밀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녀 집단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 집단 간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구조적인 관계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학생 집단에서는 교육포부와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적 동기가 아르바이트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가구의 소득, 가정 내 사회자본, 교육포부와 같이 환경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 모두가 아르바이트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열악한 가정배경이 다양한 요인들을 매개하여 이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더 나은 직업획득의 기회가 일찍부터 이들에게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장시간의 아르바이트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을 또 다시 낮은 계층에 머무르게 하는 악순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필요하며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체험하고 이것이 진학과 더 나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라는 장소가 가정배경이 열악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포부를 상실하는 곳이 아닌 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장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효진·최진선(2006).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및 근로의식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4호, pp. 39-71.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한국사회학, 제37권 제6호, pp. 115-144.
- 김예성(2004). 학교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 경험여부와 노동시장참여 동기에 따른 특성 차이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219-244.
- 김예성·김선숙(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경비행 및 중비행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 탐색.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pp. 139-161.
- 김종성·이병훈(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 33-59.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결과 보고서. 서울: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255-282.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 제19권 제1호, pp. 161-177.
- 경향신문. 2011년 5월 19일자 인터넷 기사 : ‘목숨 건 배달노동’ 청소년, 열악한 인권 실태.
- 내일신문. 2011년 6월 13일자 기사 : 주5일제 전면시행에도 청소년은 ‘주6일제’ 그대로.
- 오마이뉴스. 2010년 11월 12일자 기사 : 아르바이트 청소년 5명 중 1명은 ‘노동 재해 경험’
- 한국일보. 2009년 11월 28일자 기사 : ‘청소년 알바’ 인권침해·임금착취 심각.
- Arbuckle, J. L.(2009). *Amos 4.0 user's guide*. Chicago: Smallwaters Corporation.
- Bachman, J. G., & Schulenberg, J. E.(1993). How part-time work intensity

- work relates to drug use, problem behavior, time use, and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eniors: Are these consequences or mere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pp. 220-235.
- Bachman, J. G., Staff, J., O'Malley, P. M., Schulenberg, J. E., & Freedman-Doan, P.(2011). Twelfth-grade student work intensity linked to lat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substance use: New longitudinal evi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7 No. 2, pp. 344-363.
- Carr, R. V., Wright, J. D., & Brody, C. J.(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pp. 66-81.
- Entwisle, D. R., Alexander, K. L., & Olson, L. S.(2000). Early work histories of urban you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pp. 279-297.
- Gouvias, D., & Vitsilakis-Soroniatis, C.(2005). Student employment and parental influences on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Greek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Vol. 18 No. 4, pp. 421-449.
- Hansen, D. M., & Jarvis, P. A.(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Youth and Society*, Vol. 31 No. 4, pp. 417-436.
- Hirschman, C., & Voloshin, I.(2007). The structure of teenage employment: Social background and the jobs held by high school senior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 25, pp. 189-201.
- Lee, J. C., & Staff, J.(2007). When work matters: The varying impact of work intensity on high school dropout. *Sociology of Education*, Vol. 80, pp. 158-178.
- Leventhal, T., Graber, J. A., & Brooks-Gunn, J.(2001). Adolescent transitions to young adulthood: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Adolescent Employ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1 No. 3, pp. 297-323.

- Longest, K. C., & Shanahan, M. J.(2007). Adolescent work intensity and substance use: The mediational and moderational rol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9, pp. 703-720.
- Marsh, H. W., & Kleitman, S.(2005). Consequences of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or a threshol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42 No. 2, pp. 331-369.
- Monahan, K. C., Lee, J. M., & Steinberg, L.(2011). Revisiting the impact of part-time work on adolescent adjustment: distinguishing between selection and socialization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Child Development*, Vol. 82 No. 1, pp. 96-112.
- Mortimer, J. T., Finch, M. D., Ryu, S., Shanahan, M. J., & Call, K. T.(1996). The effects of work intensity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7 No. 3, pp. 1243-1261.
- Payne, J.(2003). The impact of part-time jobs in years 12 and 13 on qualification achievement.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29 No. 4, pp. 599-611.
- Pickering, L. E., & Vazsonyi, A. T.(2002). The impa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7, pp. 196-218.
- Roisman, G. I.(2002). Beyond main effects models of adolescent work intensity, family closeness, and school disengagement: Mediational and conditional hypothes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7, pp. 331-345.
- Schoenhals, M., Tienda, M., & Schneider, B.(1998). The educational and personal consequences of adolescent employment. *Social Forces*, Vol. 77 No. 2, pp. 723-761.



- Singh, K., Chang, M., & Dika, S.(2007).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chool achievement during high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01 No. 1, pp. 12-22.
- Staff, J., & Uggen, C.(2003). The fruits of good work: early work experiences and adolescent devia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0 No. 3, pp. 263-290.
- Staff, J., & Mortimer, J. T.(2007). Educational and work strategies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onsequences for educational attainment. *Social Forces*, Vol. 85 No. 3, pp. 1169-1194.
- Staff, J. & Mortimer, J. T.(2008). Social class background and the school-to-work transition. *New Direc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119, pp. 55-69.
- Staff, J., Osgood, D. W., Schulenberg, J. E., Bachman, J. G., & Messersmith, E. E.(2010).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Vol. 48 No. 4, pp. 1101-1131.
- Steinberg, L., Fegley, S., & Dornbusch, S. M.(1993). Negative impact of part-time work on adolescent adjustment: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No. 2, pp. 171-180.
- Steinberg, L., Greenberger, E., Garduque, L., & McAuliffe, S.(1982). High school students in labor force: Some costs and benefits to schooling and learn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4, pp. 363-372.
- Warren, J. R.(2002). Re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employment and academic outcomes: A new theory and better data. *Youth and Society*, Vol. 33 No. 3, pp. 366-393.
- Warren, J. R., & Cataldi, E.(2006). A historical perspective on high school

students' paid employ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high school dropout. *Sociological Forum*, Vol. 21 No. 1, pp. 113-143.

Warren, J. R., LePore, P. C., & Mare, R. D.(2000).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onsequences for students' grades in academic cours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7 No. 4, pp. 943-969.

Weller, N. F., Kelder, S. H., Cooper, S. P., Basen-Engquist, K., & Tortolero, S. R.(2003). School-year employ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Effects on academic, social, and physical functioning. *Adolescence*, Vol. 38, pp. 441-458.

Wright, J. P., Cullen, F. T., & Williams, N.(2002). The embeddedness of adolescent employment and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A life course perspective. *Western Criminology Review*, Vol. 4 No. 1, pp. 1-19.

## ABSTRACT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Determinants of Adolescents' Working Hours in South Korea

Hwang, Na-Young\* · Lee, Ja-Hyeong\* · Yi, Ki-Hye\*

Despite the fact that many South Korean adolescents - approximately one third of them - have part-time job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 factors that push adolescents into the labor market. In this study, we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terminants of working hours of these youth using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students, their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household income, social capital within their family, and degrees of school disengagemen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working hours of adolescents. Parental education attainment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working hours of children, however, it does appear to affect them through a variety of other mediators such as social capital, educational aspirations, and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working hours of teenagers are deeply associated with family background and degrees of school engag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art-time job, youth, family background, degrees of school engagement

투고일 : 12월 12일, 심사일 : 1월 26일, 심사완료일 : 2월 16일

---

\* Korea University

## 〈부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  | 1       |         |         |         |         |         |         |         |         |         |         |         |         |         |        |
| 2  | .427**  | 1       |         |         |         |         |         |         |         |         |         |         |         |         |        |
| 3  | .104**  | .144**  | 1       |         |         |         |         |         |         |         |         |         |         |         |        |
| 4  | .113**  | .118**  | .571**  | 1       |         |         |         |         |         |         |         |         |         |         |        |
| 5  | .083**  | .108**  | .554**  | .635**  | 1       |         |         |         |         |         |         |         |         |         |        |
| 6  | .073**  | .084**  | .529**  | .505**  | .660**  | 1       |         |         |         |         |         |         |         |         |        |
| 7  | -.023   | -.061** | -.154** | -.181** | -.194** | -.134** | 1       |         |         |         |         |         |         |         |        |
| 8  | -.106** | -.131** | -.207** | -.174** | -.213** | -.179** | .580**  | 1       |         |         |         |         |         |         |        |
| 9  | -.002   | -.050** | -.095   | -.145   | -.130** | -.085   | .384**  | .314**  | 1       |         |         |         |         |         |        |
| 10 | -.020   | -.037   | -.142** | -.174** | -.184** | -.160** | .503**  | .459**  | .325**  | 1       |         |         |         |         |        |
| 11 | .269**  | .231**  | .131**  | .139**  | .112**  | .093    | -.104** | -.185** | -.124** | -.078** | 1       |         |         |         |        |
| 12 | .077**  | .066**  | .115    | .098    | .082    | .094    | -.128   | -.248   | -.100** | -.114** | .159**  | 1       |         |         |        |
| 13 | .175**  | .172**  | .143    | .135    | .120**  | .125    | -.109** | -.303** | -.080** | -.127** | .204**  | .408**  | 1       |         |        |
| 14 | .128**  | .125**  | .110**  | .092**  | .090**  | .084    | -.111** | -.302** | -.043   | -.121** | .202**  | .204**  | .343**  | 1       |        |
| 15 | -.125** | -.145** | -.128** | -.121** | -.093   | -.069   | .080**  | .125**  | .141**  | .056**  | -.179** | -.085** | -.120** | -.120** | 1      |
| N  | 2900    | 2755    | 2885    | 2885    | 2885    | 2885    | 2870    | 2872    | 2873    | 2860    | 2876    | 2841    | 2834    | 2826    | 2967   |
| M  | 13.400  | 5.645   | 3.374   | 3.771   | 3.483   | 3.277   | 1.831   | 2.134   | 1.413   | 1.711   | 16.209  | 3.191   | 2.970   | 2.765   | 8.667  |
| SD | 2.800   | .526    | .893    | .837    | .904    | 1.026   | .980    | 1.029   | .834    | .833    | 1.589   | .805    | .987    | 1.093   | 16.895 |

1: 부모학력 2: 가구소득 3: 부모와의 관계1 4: 부모와의 관계2 5: 부모와의 관계3 6: 부모와의 관계4 7: 학교부적응1 8: 학교부적응2  
9: 학교부적응3 10: 학교부적응4 11: 교육포부 12: 이진국어성취 13: 이진영어성취 14: 이진수학성취 15: 아르바이트 시간(주당)